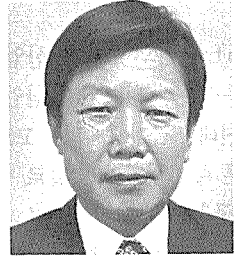


우리나라 케이블TV

현황과 전망



김 광 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국장

1. 일반개황

다채널, 다용량, 초고속 종합정보매체인 케이블TV가 '95년 3월 1일 본방송(시험방송은 '95년 1월 5일, 유료상업방송은 '95년 5월 1일)을 시작한지 불과 1년 3개월 만인 지난 6월 18일 시청가구가 100만(약 400만 시청자)을 돌파하게 된 것은 이제까지 선진외국의 케이블TV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이적인 보급 실적으로 현 시청 가능지역 총세대의 12.4%에 해당된다. 이는 KBS 등 공중파 TV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18여년 전에 개시한 기존 중계유선방송과의 경쟁과 초기 유경험 기술자나 기술 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룩한 하나의 기적이라 할 수 있다.

금번 100만 시청가구 돌파는 지난 1년 반동안 케이블TV 사업자와

주관 부서인 공보처가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보급 촉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 성과이며, 이러한 시청가구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경우 금년 말까지 150만 시청가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만 시청가구 확보를 계기로 한국 케이블TV 산업은 새로운 도약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향후 5년간 약 7조원의 하드웨어(장비, 케이블, 연결부품 등) 및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영상물) 관련 산업에서의 후방 효과와 케이블TV를 통한 광고산업의 일대변혁과 새로운 고용인력은 창출할 것이다.

2. 사업자별 운영 현황

현재 케이블TV 사업은 지역방송국(S/O-System Operator)·프로그램 공급자(P/P-Program

Provider)·전송망사업자(N/O-Network Operator) 등 3분야로 구분되어 사업 첫해에 약 6,500여명의 신규 고용인력을 창출하였으며, 총 투자된 금액만도 1조 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약 10~20만세대를 기준으로 전국을 11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 및 도청소재지에서 1차적으로 53개 방송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62개 지역은 25~30만세대 기준으로 구역역을 확대하여 약 25개 내외의 신규 방송국의 새로운 방송법이 제정된 후인 '97년에 MSO(Multiple System Operator)로 허가 될 전망이다.

주로 해당지역에 연고권을 가지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이 주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공성·공익성과 지방자치에 따른 지역 문화에 창달에 주안점을 두고

자체지역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프로그램 공급자는 27개로, KBS, MBC, SBS 등의 공중파와 달리 프로그램의 전문성·다양성을 추구하며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우리의 문화향유권을 다원화시키고 있다. 현재 뉴스·영화·스포츠·교육·음악·오락·종교·여성·어린이·문화예술·교양다큐멘터리·교통관광·만화·바둑·홈쇼핑 등 16개 분야의 27개 채널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9월 1일부터는 방송대학 채널과 12월 1일 부터는 주한 외국인을 위한 영어방송인 월드 채널이 추가 될 것이며, 이외에도 무궁화위성을 통한 위성방송과 공중파 방송도 중계되고 있으며, 각 지역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지역 채널을 포함할 경우 총 38개~42개의 다양한 채널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프로그램은 장르(분야)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약 50% 정도는 자체 제작하고 나머지는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입한 총액은 약 4,000만불로 미국에 약 70%가 편중되어 있다.

전송망 사업자는 우리나라 대표의 국영기업체인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이 P/P로부터 S/O까지의 프로그램 분배망과 S/O로부터 각 가정까지의 전송망 공사를 상호 경쟁하여, 프로그램 분배망은 한국통신이 17개 P/P·한국전력이 10개 P/P와 계약하였고, 전송망은 한국통신이 21개 S/O·한국전력이 32개 S/O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다. 방송구역에서 언제나 캐

이블TV 가입신청을 하면 즉시 연결하여 시청이 가능한 전송망 기포설비용인 홈패스(Home Pass)율은 53개 구역의 총 8,056,125세대에 대하여 총 4,126,025단자(Tap-off)가 설치되어 51.2%에 이르고 있으며, 간선은 광케이블로 지선은 동축 케이블로 연결된 HFC(Hybrid Fiber Coaxial) 혼용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통신의 프로그램 분배망은 광케이블망을 보조(Back-up), 위성을 주로 연결·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전력은 광케이블망으로만 연결되어 있다.

3. 케이블TV 가입 및 시청비용

케이블TV 이용약관에 의하면 현재 케이블TV에 가입시 시설설치비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 6만원, 단독주택인 경우는 4만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시설설치비는 인근 전송망단자(Tap-off)로부터 건물내 TV수상기까지의 구내수신설비(또는 덕내설비)와 컨버터 설치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각 S/O가 직접 공사를 하거나 하도급주어 운영되고 있다.

컨버터는 다채널 케이블TV에서 채널을 선택하며, 도시청방지를 위한 스크램블(Scramble)을 풀고, 쌍방향 통신을 가능케 하여 주는 케이블TV 시청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장치로 현재 국내 6개업체(삼성전기·대통령밀·태평양시스템·LG전자부품·대한전선·

동국전자)가 대략 11~13만원에 생산·공급하고 있다.

케이블TV 시청료는 매월 기본채널이 15,000원·유료 영화 1개채널(Catch-one)은 별도로 7,800원이며, 이외에 컨버터 월사용료 2,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본채널 시청료 15,000원은 S/O가 52.5%를 차지하며, 32.5%는 프로그램 사용료로 26개 P/P에게, 15%인 2,250원은 전송망사용료로 한국통신이나 한국전력에 지불되고 있다.

P/P 및 S/O의 주수입원은 시청료와 광고수입으로 아직은 모두 적자를 보고 있으나, 대략 S/O의 총 유료가입자가 2만 정도에 이르는 '97년에 S/O는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P/P는 전국적인 유료가입자가 250만에 도달한 이후인 '98년경에나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장비·프로그램·창업개업비 등을 포함한 투자액을 보면 S/O 가사당 평균 약 30~50억원·P/P가 90~400억원. N/O가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수입면에서도 가입자 증가 추세에 따라 광고수주가 증가되어 '96. 3월까지 1년간 총 635억원의 광고수주액을 나타내고 있어 손익분기점은 사업계획 초기 예상보다 1~2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케이블TV의 전망과 문제점

인간의 다양한 사고와 행동, 그리고 가치를 반영하는 정보가 인류 문명 발달의 원동력이며, 현대에 있어서는 다름아닌 정보의 양과 질이 향후 문명의 방향을 결정하리라는 예측이 21세기를 불과 몇 년 앞둔 오늘날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종합 정보매체인 케이블 TV의 탄생으로 우리 국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고, 다가올 고도 정보화사회를 제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통신과 방송의 융합으로 그 사업영역이 재편되고 있어, 케이블TV도 단순한 유선 TV방송에서 홈쇼핑·홈뱅킹·방법·방재·원격검침/진료·재택근무 등의 부가서비스는 물론 인터넷·화상전화·전자신문·PC역할을 기존 전송망으로 통합 서비스하는 핵심 매체로서 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인 방식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됨으로써 새로운 신호압축 기술이 소개되어 위성TV방송도 Perfect TV·Direct TV라 하여 60~150개 채널의 서

비스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적인 방송환경에 적용하여 제4의 산업혁명이라 하는 종합 정보시대인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하여는 정부부처·장비 생산업체·연구소 간의 이기주의나 아집을 버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무엇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를 냉정히 생각하여야 할 때이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모두가 지혜를 모아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부가가치가 국내에서 최대한 생산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CD롬 드라이브 EU수출 '청신호'

최근 EU집행위가 CD롬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혜택을 지속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국산 CD롬 드라이브의 對EU수출이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貿易브뤼셀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최근 이사회규정을 통해 CD롬 드라이브를 포함한 일부 공산품에대한 관세적용을 96년 7월 1일

부터 일시 면제키로 했다.

이번 관세 일시면제 혜택은 역내 생산이 전무하거나 혹은 생산량이 역내 수요에 못미치는 일부 품목에 한해 별도의 시한 없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필요할 경우 이사회 규정을 통해 대상품목 및 관세율을 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94년 EU에 CD

롬 드라이브를 처음 수출. 수출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품목으로 96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었던 관세 면제혜택이 별도의 시한없이 계속 적용됨에 따라 CD롬 드라이브의 對EU 수출은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